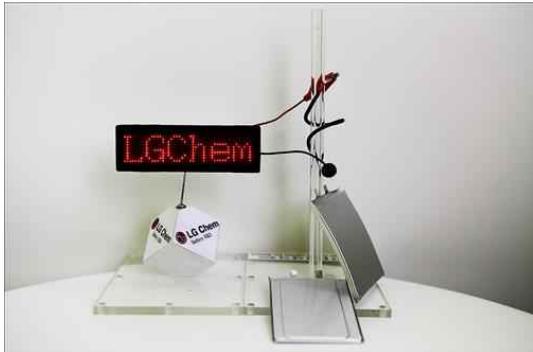


LG화학, 곡면 배터리도 생산한다!

종류 스텝드·커브드·케이블 다양 ... 곡면 IT기기 성장 가속화 기대

LG화학(대표 박진수)이 미래형 배터리를 본격 양산한다.

LG화학은 배터리 위에 배터리를 쌓는 스텝드(Stepped) 배터리와 곡면형으로 휘어지는 커브드(Curved) 배터리, 돌돌 감을 수 있는 케이블(Cable) 배터리 등 3종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.



스텝드·커브드 배터리는 생산하고 있으며 케이블 배터리는 몇 년 안으로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.

스텝드 배터리는 큰 배터리 위에 작은 배터리를 올린 2단 이상의 계단 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용량이 큰 일체형 배터리이다.

LG화학은 7월부터 중국 남경(Nanjing) 공장에서 스텝드 배터리를 생산해 LG전자의 스마트폰 <G2> 해외용에 채용

하고 있다.

스텝드 배터리는 일체형으로 제작돼 단순히 사각형 배터리를 2개 쌓아 추가부품을 사용해 연결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그립감을 위해 뒷면을 둥글린 형태의 모바일·IT기기에 채용돼 사각형 배터리를 적용할 때 생기는 사공간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수요에 맞춰 3단·4단 등으로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.

커브드 배터리는 특허 기술인 <Stack & Folding> 방식으로 구부릴 때 받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여 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하고 스마트폰·스마트시계·스마트안경 등 다양한 곡면 기기에 적용할 수 있으며 10월 초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생산에 돌입했다.

케이블 배터리는 구부리고 감고 매듭도 묶을 수 있어 웨어러블(Wearable) 기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저전력 설계로 장시간 사용에도 발열량이 적고 생활방수 기능도 갖춰 스마트시계의 밴드나 목걸이타입의 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LG화학은 케이블 배터리 개발도 완료됐으며 2016년 쯤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

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권영수 사장은 “미래형 배터리를 개발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”며 “전기자동차(EV)·에너지저장장치(ESS)용 배터리는 물론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0/08>